

옥수수시세 회복국면 소맥시세는 급등현상

미산옥수수의 주요시세 변동요인에 대한 강세요인은
이상기온 현상, 열파, 엘리뇨 현상, 감산조치,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 가격반등추세 등이고 약세요인으로는
지속적인 풍작과 공급과잉, 재고누증, 수출경쟁 등이다.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미산옥수수 회복국면

C&F 톤당 83~86불선에서 안정을 보이던 미산옥수수 시세는 최근 87~89불 선으로 다소 반등현상을 보이고 있다. 3월19일 현재 미산옥수수 시세는 3월 선적 기준으로 88~89불 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6월 선적기준 또한 88~89불 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미산옥수수 시세의 반등현상은 소련의 추가 구매가 능성과 관련된 Commercial buying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미산옥수수 시세가 최근 반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타 국산옥수수들도 물량부족으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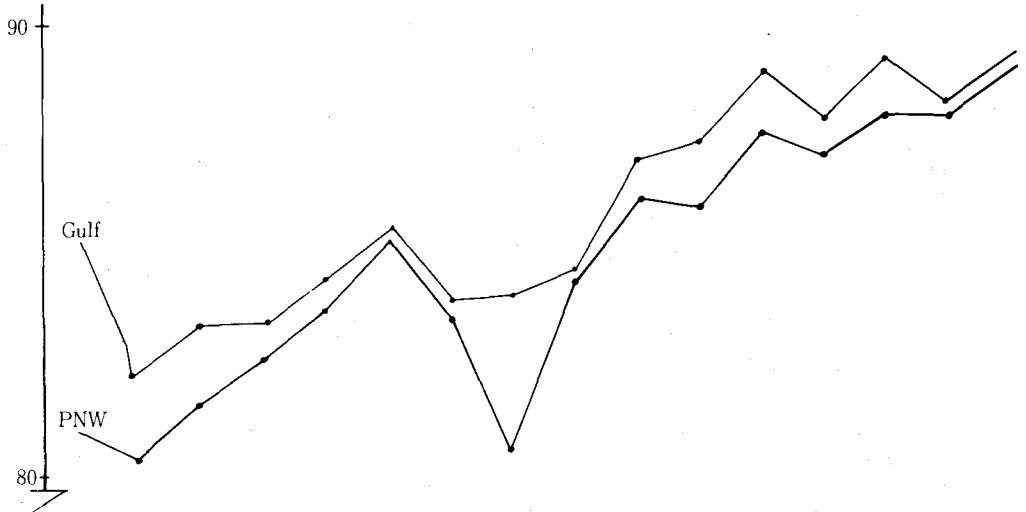
가격 견제기능을 수행치 못하고 있다. 즉 태국산옥수수 시세는 C&F 톤당 95불선으로 미산옥수수 가격에 대해 10불 가까운 가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중공산옥수수는 이제 가격오퍼조차 없는 실정이다.

최근의 미산옥수수 시세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로는 소련의 미산옥수수 구매와 남미, 남아공 등의 옥수수 생산 및 수출동향을 들 수 있다.

이미 2월말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100만톤 규모의 미산옥수수를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최근 CBT 주변에서는 계속적인 추가구매설이 나오면서 미산옥수수 시세의 단기급등을 부채질한 바 있으나

당분간 더 이상의 추가구매는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는 남미산옥수수 역시 향후 미산옥수수의 수출 가격형성에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한발피해로 인해 지난 해의 1,210만톤에 비해 다소 감소한 1,150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 금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브라질의 정부기관 CFP는 브라질의 금년도 옥수수 생산량을 2,766만톤에 이를 것으로 최근 전망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생산량인 2,000만톤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증



(3) 월	2	3	4	5	6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3
PNW	83. ³³	83. ¹³	83. ⁹²	84. ⁷¹	85. ⁵⁰	86. ⁶⁸	85. ⁴⁰	83. ³³	85. ⁹⁹	87. ³⁷	87. ¹⁷	88. ³⁵	87. ⁹⁶	88. ⁵⁵	88. ⁵⁵	89. ³³
Gulf	86. ⁹⁴	84. ⁴⁸	85. ²⁷	85. ²⁷	86. ⁰⁶	86. ⁸⁵	85. ⁵⁷	85. ⁸⁶	86. ¹⁶	87. ⁹³	88. ¹³	89. ³¹	88. ⁵²	89. ⁵⁰	88. ⁷²	89. ⁵⁰

가한 셈이다.

한편, USDA는 남아프리카의 금년도 옥수수 생산량 또한 지난해의 810만톤에 비해 17.3%증가한 95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와 같은 USDA전망치는 작황에 커다란 피해가 없는 한 무난하리라는 전망이다.

● 기상이변 관심고조

미산옥수수 시세가 소련의 구매동향에 따라 시세등락을 보이며 소폭의 회복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82~83년 이래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엘리노현상(기상이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년도 예상되는 엘리노현상은 82~83년도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나 엘리노현상 발생시 적든 크든 기상상황에 영향을 주며 곡물작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금년 들어 유럽지역에서는 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캐나다 및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는 이상난동 현상 남아공과 남반구 아르헨티나에서는 한발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엘리노현상의 전조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시장정보에 따르면 금년도 미국 중서부지역(콘벨트)에서는 강설부족으로 Winter Kill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즉 미국 중서부의 난동현상으로 강설이 적고, 이로 인해 토양수분이 부족한 실정인데, 동절기 미국 중서부의 토양수분 공급은 강설량이 적었기 때문에 시기 적절한 강우량이 공급되지 않는한 식부조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폭적인 식부감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조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과잉공급으로 인한 저곡가 추세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전문가 강세전망 지배적

매년 일본에서는 미산옥수수의 가격 전망에 대해 일본 사료업체 및 곡물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하고 있다. 금년도에도 전문가 60인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행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첫번째 87년 7월1일 기준으로 미산옥수수의 12월도 가격전망 절외에 대한 결과는 3월18일 현재 미산옥수수 시세인 Bu당 174센트 이상을 예상한 결과치가 전체 응답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로 금년도 후반기의 옥수수 시세는 현수준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또한 두번째 질문인 87년 10월1일 기준으로 미산옥수수 수확예상량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98%가 86년옥수수 생산량인 8,253백만Bu(209.6백만톤)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 60명의 평균 예상생산량은 7,047 백만Bu (179.0백만톤)이다.

세번째 질문인 87년 10월1일 기준의 미산옥수수 12월가격 역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즉 뷰셀당 174센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8%를 차지하였다.

끝으로 미산옥수수의 주요 시세 변동요인에 대한 질의에 대한 응답은 강세 요인으로는 이상 기온현상, 열파, 엘리노현상, 감산조치, 농산물가격 지지정책, 가격반등추세 등을 들었고, 약세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풍작과 공급과잉, 재고누증, 수출경쟁 등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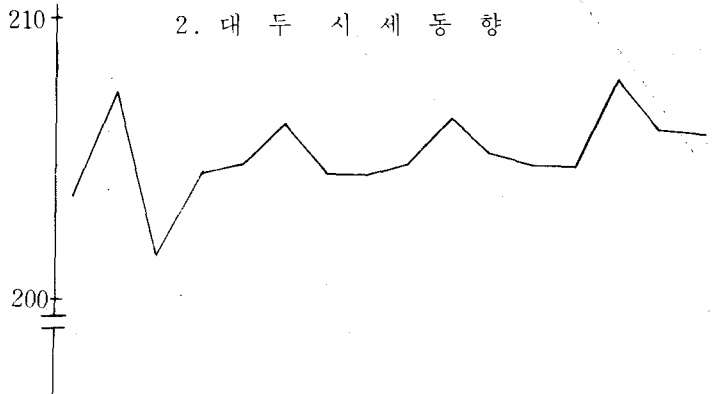
결국 이상과 같은 일본에서의 앙케이트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전반적으로 금년도 미산옥수수 수확량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가격 역시 그동안의 저가권에서 다소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소맥시세 급등

최근 옥수수 시세의 반등현상과 더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사료용 소맥 시세의 양등이다. 한때 C&F 톤당 70불 수준에서 맴돌던 사료용 소맥시세가 최근 호주 및 EC지역의 수출여력이 감소하면서 C&F 톤당 80불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대로라면 곧 미산 옥수수의 가격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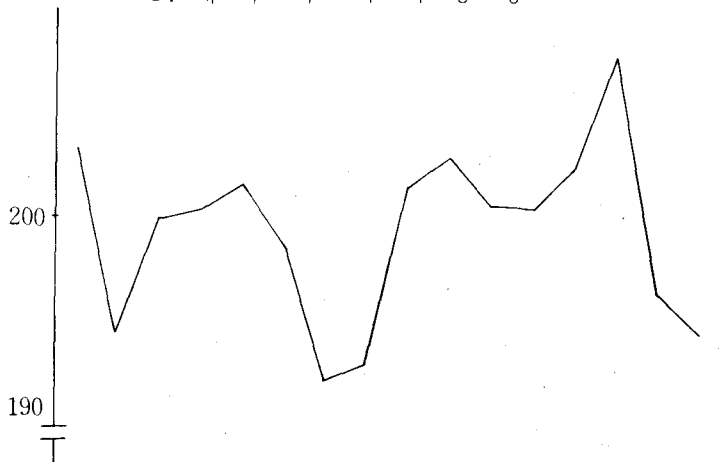
한편 수수 또한 금년도 수출여력이 크게 약화되어 중공, 호주, 아르헨티나의 가격오퍼가 아직 나오

2. 대 두 시세 동향



(3)월	2	3	4	5	6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3
C&F 가격	204.5	207.5	203.5	205.5	205.5	206.5	205.5	205.5	205.5	206.5	205.5	205.5	205.5	207.5	206.5	206.5

3. 대 두 박 시세 동향



(3)월	2	3	4	5	6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3
C&F 가격	201.5	197.5	179.5	199.5	200.5	200.5	199.5	196.5	196.5	200.5	201.5	200.5	201.5	203.5	198.5	197.5

지않고 있고, 미산옥수수 시세는 C &F 톤당 85불로 옥수수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기타 곡물의 주종을 이루는 소맥, 수수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되자 최근 일본에서는 그 대체 품목으로 호밀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 현재 서독산 호밀 시세는 C&F 톤당 74불로 일본이 최근 32,000톤을 구매계약했고, 향후 계속 수입물량을 늘려갈 전망이다. 금년도 서독의 호밀 수출여력은 약 30만톤으로 어느정도 안정적인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한때 C &F 톤당 70불 수준에서 맴돌던 사료용 소맥시세가 호주 및 EC지역의 수출여력이 감소하면서

